

(고액) 기부자의 7가지 얼굴

| |  <p>Communitarian 공동체주의자¹ 기부는 당연한 일</p> |  <p>Devout 신앙인 기부는 신의 뜻</p> |  <p>Investor 투자자 기부는 비즈니스</p> |  <p>Socialites 사교가 기부는 즐거운 일</p> |  <p>Altruists 이타주의자 기부는 올바른 일</p> |  <p>Repayers 보은자 기부는 은혜를 갚는 일</p> |  <p>Dynasts 노블리스 기부는 가문의 전통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|--|--|--|---|
| 누구인가?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체 기부자의 26.7% 고졸 이하(55.4%) 남성(91.1%) 지역에서 기업 운영(75.6%)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체 기부자의 20.9% 대졸 이상(85.7%) 남성(84.2%) 기업가(81.3%) 종교단체 및 관련 기관에의 기부에 집중(95.8%)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체 기부자의 15.3% 대졸 이상(84.1%) 남성(86.7%) 기업가(74.5%) 지역재단 등 중간지원단체를 선호(22.4%)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체 기부자의 10.8% 대졸 이상(79.1%) 여성(62.3%) 남편이 기업가 종교단체, 예술, 교육 등 사교 범위를 넓힐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를 선호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체 기부자의 9% 대졸 이상(90.3%) 기업가(69.9%) 노인 및 빈곤계층을 돕는 단체를 선호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체 기부자의 10.2% 대졸 이상(90.8%) 남성:여성=2:1 기업가(76.2%) 의료단체 및 교육기관에의 기부에 집중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체 기부자의 8.3% 대졸 이상(93.7%) 남성:여성=1:1 유산(44.1%), 가업 등이 기부의 재원. |
| 기부하는 이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영리단체가 정부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부한다(92.9%).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기부한다(89.3%). 지역공동체를 돕는 것이 옳기 때문에 기부한다(85.2%).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기부한다(78.6%)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가 종교단체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한다(86.7%). 기부 동기가 이익이나 보상보다 중요하다(88.9%), 이타적인 삶이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기부한다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영리단체가 정부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부한다(71.9%). 정부가 세금을 활용하는 방식을 가장 의심스러워하는 기부자 유형. 그러나 일부는 비영리단체를 차악(次惡)이라 여겨 기부한다. 기부 동기보다 기부 행동과 그 결과를 중요하게 여긴다(96.9%)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가 간과하는 부분에 도움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한다(91.7%). 기부 동기보다 기부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(79.2%)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영리단체가 정부보다 더 덕적이기 때문에 기부한다(55.4%).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도덕적인 의무라고 생각한다(100%)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영리단체가 정부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부한다(92.2%). 부자에게 기부할 의무가 더 있다고 생각한다(87.5%)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영리단체가 정부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부한다. 기부 동기를 중시한다(69.7%). 사회화 과정에서 기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부를 자아의 일부라고 생각한다. |
| 비영리단체를 선택하는 방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 내 단체(전국단위 단체인 경우 해당 지역 조직)를 선호한다. 효율성을 중시하며,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신중히 선택한다(91.9%). 기부 결정에 자문-전문가, 신뢰하는 사람, 자선분야 전문가 등을 폭넓게 사용한다(51.4%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믿음을 바탕으로 기부 결정을 내리며, 시간을 들여 신중히 결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(44.2%). 기부 결정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경우는 드물며(12.5%), 받는 경우도 대개 종교적 스승으로부터이다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충분히 분석, 평가하여 선택한다(81.3%). 자문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(10.3%) 대부분은 이에 관심이 있다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선택한다(79.2%). 사회적 인맥이 인정한 단체를 선택한다.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(20%)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체의 객관적인 실적을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(50.3%).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의 자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. 결정은 주변의 자문이나 조언 없이 혼자 한다(100%)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체의 객관적인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(81%) 결정에 전문가의 자문을 거의 의지하지 않는다(5%)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(100%). 결정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(61.5%). |
| 기부 이후에 비영리단체에 기대하는 것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부금이 쓰이는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(41.8%). 자신의 기부 동기를 잘 이해해 주기 바란다(83.9%). 자신의 욕구에 신경 써 주기를 기대한다(85.7%). 개인적인 관심을 기대한다(86.9%). 공식적 인정을 원한다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부분 단체 운영에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(24.1%). 종교적 가치에 기반한 자신의 기부 동기를 이해하고 가치를 인정해 주기 바란다(95.6%). 자신의 욕구에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(100%). 개인적인 관심을 기대한다(80.2%). 단체 내에서의 인정과, 단체의 대외적 명성을 원한다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부분 단체 운영에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(3.1%). 자신의 사업적 관심을 잘 이해해 주기 바란다(87.5%). 자신의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려는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(87.5%). 이를 훌륭한 단체의 자세로 여기기 때문이다. 개인적인 관심을 기대한다(90.6%). 공식적 인정을 원한다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체 운영에 관여하기 원하지 않는다. 단체가 자신의 목적이나 다양한 요구사항에 귀기울여 주기 바란다(91.7%). 공식적 인정을 원한다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체 운영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(5.6%). 순수한 동기를 이해받기 바란다(95.2%). 개인적인 관심과 인정, 존중을 바란다(85.1%). 공식적 인정을 바라지 않는다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체 운영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편이다(33.3%). 자신의 동기를 이해받기 바라는 편이다(42.9%). 단체가 자신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 원한다(75.3%). 개인적인 관심과 인정은 별로 바라지 않는다(9.5%)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체 운영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편이다(31.3%). 자신의 기부동기를 이해받기 바란다(81.3%). 특히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기부의 전통을 배려해 주기를 원한다. 단체가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한다. 개인적인 관심과 인정은 별로 바라지 않는다(6.3%). 단체의 사명에 집중하기 바란다. |

주 1. '지역 유지' 뜻에 좀 더 가까운 듯?